

buddhanews.com

# 말로 옮기려 하지 말고 그냥 집어먹으세요

## 25면에서 계속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 것은 어떠한 것으로 비었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비었다고 합니까? 내가 항상 말씀해드렸죠. 말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배우라는 얘기죠. 뜻을 아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해도 그냥 집어먹어야 돼요. 말로 옮기려 하지 말고 그냥 집어먹어야 돼요. 목마르면 물 마시기 말이예요.

“본래 공했기 때문에 비었다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본래 공한 것을 어떻게 공이라고 체함을 합니까?” 하고 또 물었대요, 글썽. 그래 꼬리에 꼬리가 붙어서 들어간 거죠. “공했다고, 그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한 것을 체함하는 것입니다.”라는 얘기도. “그러면 공은 어디서 구합니까?” 부처님 해탈 속에서 구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공한 것을 어디서 구하느냐니까, “육신이 소견, 외도 소견 속에서 구합니까?” “그래, 육신이건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해탈 속에서 구한다.” 그랬어요. 돌아가서 참 묘하게 대답했어. 왜냐하면 육신이건 속에 소견, 외도 소견 모두를 종합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전체를 한마음속에서 구했다는 뜻이죠. 거기서부터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뜻을 우리가 삼키면서, 또 삼키고 행하면서 우리는 지혜를 넓혀가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대나무 귀신 방귀를 먹고 넓혀간다.’ 이런 말을 했죠. ‘자기 싸를 구하려고 대나무 방귀를 구해야 하고 그 방귀씨를 싸를 피어서 기르려 대나무 귀신 방귀를 더 먹어야 되고 말고 먹어야 되고 말고 아구증 나지 않게 먹어야 키워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낯설지만 모르죠. 이 도리를 아는 분들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말이예요. 그래서 “육신이건은 어디서 구합니까?” 하니까 부처님 해탈 속에서 구하고 “부처님 해탈은 어디서 구합니까?” “중생들 마음속에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또, 풀 한 포기, 벌레 하나가 아니었더라면 내 어찌 그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했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벗어, 모두 도반이요, 요거 한마디를 하고 떠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가난과 병고와 우환 등 여러 가지죠.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데도 그렇고 또 부모가 자신들을 이끌어 가려면 움직여서는 그 생활도 그렇고 자기 몸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로 괴로움이 한 두 건이 아니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 도리를 알고 공부한다면, 아주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도리, 또 생산적인 도리, 개발적인 도리를 공부하신다

면 이것은 불가사의한 법으로서 그대로 편안하게, 언어조차도 불지 않는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바깥에서 유전성으로 오든, 안에서 인과로 인해서 벌어지든, 영계가 들고 뭐, 안팎으로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생활을 하다가도 뭐 회사가 망했다든가 또 공부를 하다가도 그냥 지친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가장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 그것을 다 물리치고 녹이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은 거와 같은데, 항상 그렇게 일러드려도 그것을 놓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복하면 이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 탄 영계가 들어왔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부었습니다. (컵의 물을 뚜껑에 조금 부었다가 다시 컵에 부으신 후) 그럼 물 한 그릇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체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이 들어와서 탄 영계가 내 집 주인 노릇을 하더라도 내가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모두 한 그릇에 있어요. 같이 먹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치운다면 상당히 좋을 것을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런데 거기 한테 들어갔으니깐 천 명이 들어가도, 두 명이 들어가도, 한 명이 들어가도 ‘아이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우리 딸이 이렇게 무슨 누가 이렇게 무슨 누구

까 뭐가 없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못 들어보셨죠? 이거와 같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 명이 들어갔어도 당신이 바로 주인공 아니겠는가?’ 하고 주인공만이 속의 뜻을, 말로 하지 말란 말이예요. 뜻으로서 주인공만이, 당신만이 이 애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 그것을 가지고 그저 만날 적마다 그렇게 해준다면, 또 만나지 않을 때도 그렇고 만나서도 그렇고 먼데 있으나 가깝게 있으나 똑 같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를 달린대도, 탐험을 한대도 돌이 아닌 까닭에 마음은 그저 어디로 갈 수 있다는 애김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산이 높아서 못 넘는 게 아니고 돌이 깊어서 못 건너가는 게 아니고, 은산 철벽이 두꺼워서 못 뚫는 게 아니라고요. “사방은 텅 텅텅나라.”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해드렸으니 인제는 모든 마음을 같이 이렇게 들면서

리가 되는 것도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깐요. 사는 대로 입력이 돼 있고. 자기가 하는 것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한 법이죠! 그러니 묘한 법이라고 할 수밖에요.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면서 이렇게 역경을 거쳐서 인간으로 등장했으니깐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죠. 참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거룩하고 그렇게 즐겁고 소중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육신이 아니었더라면 이 도리를 또 모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부부기간이나 자식기간으로 살다가 자식이 하나 죽으면 그렇게 슬프죠. 또 식구가 다 죽고 자기 한테만 남으면 그렇게 외롭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다가 그건 덤으로다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가 여러분한테 다 주어졌어요. 컴퓨터도 붙어있고, 보이지 않는 그 자체 내에 갖고 있는 속명령을 컴퓨터로 비유했으니까, 그것도 붙어있고 남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타심통도 붙어있고, 또 팩스도 붙어있고요. 또 요거는 무선통신기도 붙어있고, 천체망원경도 붙어 있습니다. 요렇게 조르러니 붙어있어서 (원손을 펴서 그 주위를 오른쪽으로 돌려 보이시며) 요것이 돌아갑니다. 네? 들리고 내는 요거. 통신망은 바로 레이더망이 하고 있죠. 그래서 레이더망은 통신이 오면 대내에서 모든 것이 통신이 되듯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이 거기에 통신이 되면 다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컴퓨터에 입력이 들어갑니다. 이런 자동입니다.

여러분은 그거 쉽게 물질적인 컴퓨터로만 생각하지 말고, 물질적인 컴퓨터도 사람이 입력을 해야 쓸 수 있지 입력을 안 내놓는 거는 못 씁니다. 그런 반면에 인간은 그대로 자동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거기가 입력을 해놓으면 그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걸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말해드려야 이것이 증명되나 하고 이렇게 저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 자동기계를 굴리려면 따로 이 오신통이 돌아가는 바깥에서야만이 이걸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우린 그대로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오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거 바깥에서 오는 거, 이것이 바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닌, 자기가 그대로 한생각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0년 3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켜보고 관한다면 인과응보가 무너지고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거기에 맡겨놓고 거기 서밖에는 해결을 못 한다 하곤선 거기가 딱! 맡겨 놓고 지켜보는 그것이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관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켜보고 관한다’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과응보가 무너지고 습이 녹아지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진짜 공부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입력입니다. 입력!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 오는 대로 입력을 해놓으면 그게 돌아간다.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자동기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돌이 아니게 내 주인공에, 아들이 아파도 내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해나가서 완벽하게 이게 선다면 아! 그러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까 뭐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그랬죠? 돌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고. 돌이 아닌 까닭에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병을 고쳐주려면, 예를 들자면 특히 정신질환은 더합니다. ‘네 주인공만이 너를 이끌어 갈 수 있다’ 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붙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묘한 생각이 있어요. ‘아이구! 이거는 무슨 어머니 조상이 붙었고 무슨 누구 영계가 죽었는데 여기 붙어서 이력하고,’ 아,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지라도 그 생각을 떠나야 할 텐데, 놔야 할 텐데 고된 생각들을 하니 이게 떨어지니까? 네? 뭐가 붙었습니까? 물론 그릇에다 물방울 하나 넣

가 이렇고...’ 이런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건 왜냐? 여기 물컵에 들어갔으면 벌써 한 그릇이야. 한 물이야. 영이다가 영을 넣으니까 몇이 됩니까? 예? 그냥 영이죠? 허허. 스무 개를 넣으면 또 더 두드러지니까? 그냥 영이죠? 그런데 거기 뭐가 붙었다고 합니까? 참 이상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 십 년이 못 년이

고 그래 고생을 받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각각 보십니까! 돌이 아닌 도리를 가르치는데 왜 각각 보시느냐 이겁니다. 요거는 내가 꼭 말을 하고 넘어가겠다고 다짐을 한 거거든요. 하도 애를 쓰니까, 그래서 영과 영이 열 개가 한테 합쳐도 돌이 아닌 까닭에 아! 아무나 들어왔더라도 주인은 주인 아니겠는가! 그러니 주인공이야, 그냥 당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바로 주인공 아닌가! 그러니 이 몸을 이끌어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당신밖에 없어. 뜻으로도 속의 주인공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시식을, 제사를, 천도를 수백 번 드리는 것보다 그 한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참 놀리고 돈 벌다가 허탈히 쓰는 법을 버리고 돈 쓰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돈 버는 것만 배우지 마시고 쓰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올바르게 써야 올 바르지 않게 쓰는 것은 귀신 놀음이나 한가지고 도깨비장난이나 한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못사는 것도 여러분의 차원 때문입니다. 모르는 차원.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차원 때문에. 난,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죄가 있으

## 습이 녹아지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용을 하세요. 활용이 아니고 중용입니다. 안팎이 다 드러는 그런 활용 말입니다. 그것이 중용이예요.

또 한 가지 말씀해드릴 것은, 내가 항상 오신통, 오신통 했는데 오신통이라는 것은 이름일 뿐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단말이. 무슨 없는 것을 발견을 해야 그게 대단한 거지, 본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모르고 때문에 이렇게 다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떡하면 알아듣기 쉬웁니까 해서 현실의 물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현대 용어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머리 위에 신통이 다섯 개라면, 출창 말을 하죠? 속명령이니 타심통이니 천이 통이니 신족통이니 또는 천안통이니, 이 다섯 가지 문제가 여러분한테 재료로 주어져 있다고요. 만약에 그걸 벗어나서 대뇌로 돌아간다면 모두 통신이 된다 하는 걸 레이더망으로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신족통이라는 것은 아까 팩스로 한번 비교해봤죠? 가고 음이 없이 가고 오니까요. 또 탐지기 보셨죠? 그것은 타심통에다가 비유할 수 있다고 항상 얘기했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되풀이하느냐 하면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컴퓨터와 탐지기, 즉 컴퓨터는 과거를 짚어지고 나온 겁니다. 과거에 살던 것이 모두 입력이 돼가지고 나온 자동컴퓨터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그게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약도 선도 속삭이는 것도, 또 머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2100%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 (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고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적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의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목.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코리아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코리아.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지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실법**

풍뎅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각 속에는 이끼처럼 속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습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